

알쓸신잡

1기, 1.5기 활동내용 소개

CONTENTS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 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알쓸신잡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활동시간 및 방법

1.5기의 활동시간은 월요일 오후 9시였습니다.

해당 시간은 1.5기를 모집한 이후에 시간 조정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새로운 기수분들의 시간조정도 당연히 고려될 것이며

인원이 다수가 될 경우 2부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발표내용과 방법은 자유입니다.

각자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모든 내용을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알쓸신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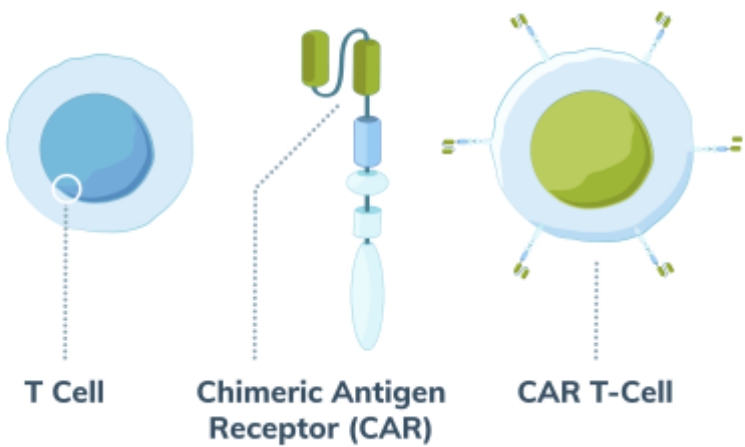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발표내용 예시

CAR-T 치료제
Chimeric Antigen Receptor - T



1기,1.5기들은 언어, 역사, 경영, 공학, 과학, 철학 등 정말 많은 분야들을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제와 관련된 발표주제 혹은 해외수수료와 관련된 발표주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종교, 반도체, 제품리뷰와 같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치킨을 시켜먹는다면(DCC)
\$100 ₩100,000(\$1 = ₩1000)

1. DCC - 현지 화폐 원화 환전	100 * 1,010 (₩101,000)
2. DCC 수수료 3% ~ 10%	100 * 1.01 * 1.03(₩104,030)
3. 국제 브랜드 달러 환전	104,030 / 990 (\$105.08)
4. 국제 브랜드 수수료	105.08 * 1.01 (\$106.13)
5. 국내 카드사 원화 환전	106.13 * 1,010 (₩107,191)
6. 국내 카드사 수수료	107,191 * 1.005 (₩107,727)

알쓸신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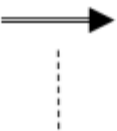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발표내용 예시

7.미적 방법론들의 종합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
이해 대상에서 누락된 세계를
감각 및 확장



과거 흑인 인권 실태/
노예제의 모순

1)'미메시스'
(잘 의도된 이미테이션)

자유가 없는 근원적 고통,
부조리에의 분노

현재 Black Lives Matter를 보편적
가치/사(史)적으로 이해

2)'해체-difference'
(누락된 틈 사유)



노예란 무엇인가?
'자유를 잃고 고통받
는 자들이다.'

자유를 잃고 고통받는
자들 중 잊혀진 자들은
누구인가?

이해한 사회 이면 세계로의 확장
(주름 펴기-기존 문제의식의 벽 해체)

EX) 1.5기 D: 저는 미학을 안내하고, 짧게나마 미학적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선 미메시스의 개념을 통해 현실을 모사한 작품들을 여타의 감각과 사유로 확장하는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감각 과잉의 시대, 생생한 모방의 역설로 인한 누락된 영역들에 반응하고,
이에 대해 사유 및 자기 자신을 확장해나가는 해체의 방법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언뜻 난해하게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미학을 놀이로 적용해보는
세미나였습니다.

알쓸신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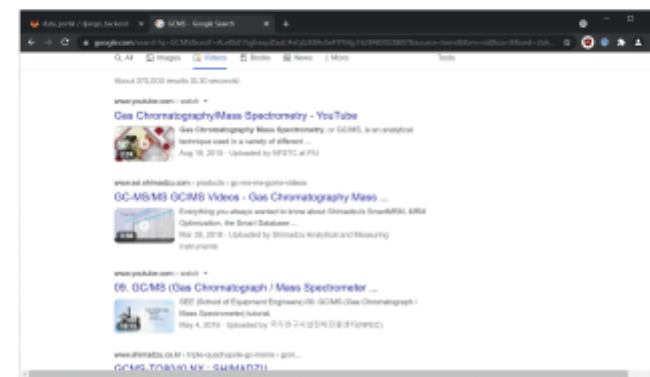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발표내용 예시

자세한건 어차피 유튜브에 나옵니다만...



한글로 된 자료가 없다.



+) 굳이 무겁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기 F : 화공과의 분석화학 전공시간에는 GCMS라는 샘플 분석기기를 배웁니다. 이걸 ~하고 ~를 하며 ~합니다.

다른 과들이 뭐 하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전공강의 하나 더 듣고싶지는 않잖아요?

가볍게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뭘 배우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다나 떨다 가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팩트) 전 항공우주공학과입니다.

알쓸신잡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1기, 1.5기들의 후기

* 1기들의 후기는 1기 활동 종료 이후 시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기수는 단순 구분용이며 활동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해당 후기들을 요약하였으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글이 길어도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1기 A:

제가 했던 재밌었던 일들과 도전들을 이야기했고, 물류비용 증대에 따른 HMM및 해운업 주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국에 얘기 하고싶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유익한 발표는 삭막한 학기 중에 흥미를 돋웠습니다.
발표 형식도 딱히 없고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라 준비할 때나 발표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기 B:

저는 역사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그 중에 흥미가 있을만한 사건을 소개하는 것 위주의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1기모임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청나라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명나라의 멸망과정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분쟁의 역사적 연원을 찾아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쌓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책이나 여러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자칫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만 몰두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쓸신잡 모임은 그러한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지식을 매주 2개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지식의 공유의 장이니, 부담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쓸신잡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1기, 1.5기들의 후기

1기 C:

처음에 종교나 언어, 철학, 법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어떤 것을 발표해야할지 한참 고민했을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실험적인 시도였던 1기이니만큼 사람을 모으고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는 이공계열 주제의 발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인문계인 저로서는 오히려 색다르고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주제들을 상세히 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부디 제 인문계열 주제 또한 이공계열 구성원 분들께 색달랐기를 바랍니다.

발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제를 발표하면 되는 점,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색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큰 부담 갖지 않고 1.5기나 다음 이어나갈 구성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기를 마치면서 대학 관계로 빠르게 이탈하게 된 점, 또 알고있는 언어나 법, 종교쪽 지식들을 제대로 깊이 있게 구성하여 전달하지 못한 점 따위가 눈에 밟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 또한 이제 막 자유로운 학문의 장에 발을 내딛는 시발점이자 발판으로써 작용하여, 앞으로 제가 학문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는 들어라, 마음만 있으면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것에 정진하면 현명해질 것이다. 네가 듣기를 좋아하면 배우는 것이 많겠고 귀를 기울일 줄 알면 현자가 되리라.(Liber Ecclesiasticus 6,32-33)

앞으로 알쓸신잡 구성체의 번성과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 년간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알쓸신잡

01 활동시간 및 방법

02 발표내용 예시

03 1기, 1.5기들의 후기

1기, 1.5기들의 후기

1.5기 D :

세미나 준비 중에는 본인이 속한 영역에서 당연스럽게 통용되는 개념이나 이론을 쉽게 풀어 설명해봄으로써 해당 지식의 본질, 사회 내 가치를 메타적으로 재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는 다양한 코멘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전공-지식 영역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접하기에 사유 확장이 다각도로 일어납니다.

뒤집어서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영역의 지식을 러프하게 생각 및 질의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5기 E :

다양한 분야에 열정과 흥미가 있는 사람들의 발표(알아두면 쓸모도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는)를 경청함으로써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내가 배운 관심 분야를 발표하기 위해 ppt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리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에 가장 최적의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서 작성 : https://semper-16.github.io/SEM/2_apply.docx

문의사항 : <https://open.kakao.com/o/snRrAjXc>